

# 초상화로 만나는 제주여성 독립운동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윤석남 특별기획전 마련  
이달 16일부터 드로잉·설치·영상작품 등 선배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로 불리는 원로 작가 윤석남이 채색 초상화로 조망한 제주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1층 기획전실에서 이달 1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진행되는 윤석남 특별기획전 '제주여성 독립운동가'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작가 윤석남의 시선으로 한국여성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재해석했던 작품활동에 이어 제주여성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윤석남의 작품세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윤석남의 지난 40년간의 작품활동을 훑다 보면 여성주의적 성찰을 화두로 한 여성 주체의 발굴과 재조명의 치열한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작가는 일련의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들을 통해 정치적 독립과 여성의 존엄을 획득하고자 했던 여성 독립 주체를 호명한다. 여성에게 민족과 국가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독립'과 '자존'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엔 제주여성 독립운동가 강평국, 김시숙, 고수선, 최정숙, 김옥련, 부춘화 채색 초상화와 드로잉, 설치(붉은 방), 영상 등 18점이 전시된다.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은 "윤석남이 그려낸 제주여성 독립운동가의 채색 초상화 특별기획전을 통해 세상에 맞서 우뚝 선 제주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만나고, 동



사진은 왼쪽부터 윤석남 작 '강평국 초상' '김옥련 초상' '김시숙 초상'

시에 우리 안에 도저한 강물로 흐르는 여성 주체와 만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막일인 16일 오후 3시에는 '한국 여성주의 미술과 윤석남의 채색

초상화로 보는 제주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작가와 함께하는 오픈토크'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 청소년 음악가들의 꿈·희망의 무대

17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청소년 협주곡 음악회

지역 청소년 음악가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협연 무대의 막이 오른다.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청소년 협주곡 음악회'다.

이달 17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

관 무대에 서는 청소년 음악가들은 모두 6명. 지난 9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로, 10월과 11월 운영된 전문 클래식 음악가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한층 향상된 음악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백가은(대정중 1)은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1악장', 김지울(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7학년)은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3악장', 조운서(한라중 1)는 비외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 오수아(함덕고 1)는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1악장', 문석현(NLCS 제주 12학년)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1악장', 김홍신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1악장'을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전석 무료며, 입장권은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해 선착순 33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김정문화회관은 2018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해 온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청소년 협주곡 음악회'를 운영해 지역 청소년 음악가 육성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인 전문예술단체-청소년 음악가 연계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클래식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운영했다.

## 제주 돌문화 연구, 나아갈 길 모색

15일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와 과제' 학술 심포지엄

일상생활에서 신앙,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제주의 돌문화, 제주 돌문화 관련 연구는 1970년대 돌하르방을 중심으로 시작되

이후 정남, 동자석, 거옥대, 잣성, 불턱과 같은 개별 석조물을 비롯 돌담, 환해장성, 연대와 같은 '돌문화 경관'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제주 돌문화'의 생활, 방어, 신앙 등 복합적인 기능에 주목해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한국위원회 (ECOMOS-KOREA)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이달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와 과제' 학술 심포지엄이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이재

열)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관장 박찬식), 제주돌문화공원(소장 장철원)과 함께 준비한 자리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은 제주대 정광중 교수의 '제주 돌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향하여-유산적 가치 탐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돌문화 전문가들이 9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고재만의 **제주어기담관** <332>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〇맹이 골맨, "하르바님, 새시방 허리춤서 짐포따리 풀인 보난 무신거가 싯겐 하엿수과?"  
하르바님 골맨, "보리떡이영 꿩이영 짐치도 이섯저. 경후국 도시 마농지도 이서라. 몰맹도 혼디 ㄱ전오고."  
준배 골맨저, "아고, 마농지도 이섯구냐양. 〇맹이야, 오닐 즈낙이 감제 먹을 때 마농지영 혼디 먹게. 느가 마농질 잘 먹질 안 하여시냐?"  
하르바님, 마농질 ㅎ팜 더 맛종게 맹글맹 ㅎ민 어뎡 맹글민 좋아마씀?"  
하르바님 골맨, "문침 장물을 풀려사 혼다. 경후국 마농 줄거리 ㅎ국 뿔뿔 ㄱ꺠히 다들양 항에 담야 낭. 장물 팔맹 식은 거 비왕 푸쟁이 잘 뒤영 놔두민 꿩주. 푸쟁일 잘 뒤영 놔둬서 먹으면 맛 종은다."

**\* 제주어 풀이**

- \* 풀다: <움직> '넌 것, 묶은 것, 얽힌 것, 감긴 것' 따위를 풀러 풀어지게 하다. 깊은 이치나 문제 따위를 밝히다. 금하였던 일을 터놓다. 풀다.
- \* 짐포따리 풀인 보난: 짐포따리를 풀어서 보니.
- \* 몰맹: 몰병. \* 혼디 ㄱ전오고: 같이 가져오고.
- \* 이섯구냐양: 있었었네요. \* 오닐 즈낙이: 오늘 저녁에.
- \* 느가 마농질: 내가 마농지를.
- \* 안 하여시냐?: 안 했어? \* 문침: 먼저.
- \* 풀려사 혼다: 풀어야 해. \* 뿔뿔 ㄱ꺠히: 뿌릴 깨끗이.
- \* 다들양 항에 담야 낭: 다들어서 항아리에 담고.
- \* 장물 팔맹: 간장 끊어서.
- \* 식은 거 비왕: 식은 거 비워서 \* 푸쟁이: 푸쟁.
- \* 뒤영 놔두민 꿩주: 덮어 놔두면 된다.
- \* 푸쟁일 잘 뒤영: 푸쟁을 덮어서.

고재만 화백(전문가)

## "교류·연대"... 제주예술인의 밤 '연년 세세'

(사)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과 탐라미술인협회(회장 강문석)가 제주예술인의 밤 '연년 세세'를 연다. 예술인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전하며 위로하는 교류의 장이자 연대의 장으로, 이달 17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텐저린 맨션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자리로 채워진다.

행사는 3부로 나눠 펼쳐진다. 1

부 '기억의 치유'에선 '미디어아트 :4:3의 기록과 저항의 연대'와 '시·소리·몸짓·행정의 기억에 안부를 묻고 전하다' 등 미디어아트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행사는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주근곳보존회 서순실 회장의 비넴으로 마무리된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https://c11.kr/18bq>)을 해야한다.

**12월 21일(수) OPEN** "고객님 한분한분 최고로 모십니다!"

DJ 환이 DJ 강건 DJ 홍민 DJ 강현 DJ 원이

**1부 성인친구! 2부 광란의 밤!!** 밴드 "SPECIAL"

※주임/웨이터 모집중! ☎ 010-4652-1168 남녀(나이제한없음, 초보자 가능) 064)744-0662~3

**제주관광 나이트클럽** 연동 보름섬름싸롱 건물

롯데시네마호텔 기아자동차 사무공원  
한리병원 제주관광나이트 우리사우나